

<컴패션 뉴스레터 1970년 11-12월호>

복된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17)

푸지 투한(Pudji Tuhan)! (인도네시아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데일 에반스(Dale Evans)가 컴패션 관련 TV 스페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컴패션은 18년 역사상 처음으로 30분 분량의 풀 컬러 텔레비전 방송물을 제작했습니다. "컴패션의 어린이들(The Children of Compassion)"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은 8월에 제작되었으며, 데일 에반스(Dale Evans)가 진행했습니다. 이는 컴패션 사역을 위한 새로운 후원자와 지지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우리는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과 오하이오주 전역에서 최초 발표를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9월에 콜럼버스(Columbus), 톨레도(Toledo), 신시내티(Cincinnati), 클리블랜드(Cleveland),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시청자 반응의 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바라건대, 이 방송을 통해 아직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수천 명의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후원자와 지지자가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데일 에반스를 "컴패션의 어린이들"의 진행자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가난하고 어려운 어린이들을 오랫동안 후원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² 로이 로저스(Roy Rogers)는 어린이들을 몇 명 입양했는데, 그중 일부는 우리가 특별히 집중했던 한국 어린이들입니다.

"컴패션의 어린이들"에는 컴패션의 설립자인 고(故)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의 삶을 바탕으로 한 컬러 음성 단편 영화인 "맨 오브 컴패션(The Man of Compassion)"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일(Dale)은 이 프로그램에서 미리암 스완슨 여사와 헨리 하비 목사님도 인터뷰하며, 마지막에는 컴패션의 많은 후원자들이 그들에게 후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이야기합니다.

후원자가 된 기쁨을 이야기하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주신 다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¹데일 에반스(Dale Evans, 1912~2001): 미국의 가수, 작곡가 겸 작사가(https://en.wikipedia.org/wiki/Dale_Evans).

²로이 로저스(Roy Rogers, 1911~1998): 미국의 가수, 배우, 텔레비전 방송 진행자(https://en.wikipedia.org/wiki/Roy_Rogers).

캘리포니아주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의 엠마 킹(Emma King) 여사, 월넛(Walnut)의 루실 란시아(Lucille Lancia)와 마르시아 란시아(Marcia Lancia) 여사, 로스앤젤레스의 루스 버몬트(Ruth Beaumont) 여사, 그리고 오하이오주 데이턴(Dayton)의 바이런 반 사이크(Byron Van Scyoc) 목사, 클리블랜드 하이츠(Cleveland Hights)의 로웰 레이먼드(Lowell Raymond) 씨, 파르마 하이츠(Parma Heights)의 캐럴 브라운(Carol Braun) 여사

풀 컬러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우편을 통한 후속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접근 방식³멀티미디어 믹스(Multi-media Mix)라고 부름)을 사용하면 TV 방송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다른 지역의 TV 방송국에서도 이 특별 프로그램을 "공익"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라디오와 TV를 통해 여러 개의 짧은 광고가 오하이오 전역과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사진)

- (왼쪽) 하비 목사, 데일 에반스(Dale Evans), 미리암 스완슨 여사
- (오른쪽) 전국적으로 유명한 텔레비전, 영화, 라디오 방송인인 데일 에반스가 "کمپا션의 어린이들(The Children of Compassion)"의 촬영에 앞서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TV 프로그램은 지난 8월 캘리포니아 할리우드의 KCOP-TV 스튜디오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촬영 세트에는 미리암 스완슨 کمپا션 부대표와 헨리 하비 کمپا션 대표의 모습도 보입니다(맨 오른쪽, 카메라 뒤).

کمپا션

만약 모든 사람이 몸과 영혼, 정신이 모두 완벽하다면,
그렇다면 동정심을 품은 사람을 찾는 것은 정말로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고통받는 존재는 다른 이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 친절을 측정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⁴마틴 뷁스바움(M. Buxbaum)

³멀티미디어 믹스(Multi-media Mix): 텔레비전, 라디오, 직접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형태를 결합하여 주요 프로젝트를 홍보하거나 지원하는 전략

⁴마틴 뷁스바움(Martin Buxbaum, 1934~1991): 미국의 시인

<https://www.washingtonpost.com/archive/local/1991/03/27/noted-maryland-poet-martin-buxbaum-dies/3adc79e6-43a4-4558-9c5b-7205da88bbdf/>.

기이한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제가 약 30분 동안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친척들과 기독교인들은 너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아졌으며 마음도 행복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제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제 갱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날이 제 두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나쁜 친구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서 저에게 "미친놈!"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컴패션이 후원하는 보육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저의 영적인 삶은 날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때 컴패션의 설립자인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의 도움으로 3년 과정의 고등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셔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조금씩 축복해 주셔서, 이후 대학 교육을 받고, 이어서 신학교 과정도 밟을 수 있는 또 다른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1964년 저는 한센병 환자 정착촌을 방문했고, 이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 정착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어른과 어린이를 포함해 230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님께서 저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저의 사역을 축복하셨습니다. 저의 소망과 기도는 그들을 위한 기술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로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분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정말 행복합니다.

- 티머시 김

(사진)

티머시 김 목사님과 성도들

캐나다에서 열린 전도대회

컴패션은 1970년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캐나다의 아름다운 수도인 오타와(Ottawa)에서 열린 캐나다 전도대회에서 훌륭한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컴패션의 발표는 글렌 클리블랜드(Glenn Cleveland) 캐나다 컴패션 이사회 위원과 함께 자넷 포사이스(Janet Forsyth) 캐나다 컴패션 대표가 이끌었고, 시카고 컴패션의 미리암 스완슨 부대표 및 도널드 J. 스미스(Donald J. Smith) 후원자 관리 이사가 동행했습니다.

이 회의의 뛰어난 연사 중에는 레이턴 포드(Leighton Ford) 박사, 코건(Coggan) 대주교, 데니스 클라크(Dennis Clark) 씨, M. 페런드 세인트 루이스(M. Ferrand St. Louis), 칼 F. H. 헨리(Carl F. H. Henry) 박사, 사무엘 에스코바르(Samuel Escobar) 박사 등이 있었습니다.

레이턴 포드(Leighton Ford) 박사는 사회적 행동과 복음 전파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분리될 수도 없다는 점을 대회에서 상기시켰습니다. 1년 전 보고타(Bogota)에서 열린 라틴 아메리카 전도대회에서 발표된 사무엘 에스코바르(Samuel Escobar) 박사의 훌륭하고 예리한 연설인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설교와 전도지에서는 술 취하는 사람들에게 술을 끊고, 도둑과 비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떠나라고 권하며,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존경하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메시지는 인디언을 착취하는 자들, 자본가들의 악용, 부패한 경찰, 더러운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륙의 대중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무관심한 것이 죄가 아니거나 죄의 표시가 아닙니까?"

"봉사는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사회 계층, 경제 상황, 정치적 지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자본가와 노동자, 군인과 정치인 모두가 회개와 믿음으로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 개인 간증, 출판물 및 성경 배포를 통해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은 모든 신자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그는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진리와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그 복음을 실천하는 것을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둘은 다르지만, 둘 다 필수적입니다."

캐나다의 뛰어난 선교 정치가인 데니스 클라크(Dennis Clark) 씨는 세계 선교에 있어서 식민지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각 나라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많은 세계 선교를 수행해야 합니다.

컴패션의 대표들은 컴패션이 세계 선교에서 중요한 기독교적 증인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 기쁨을 표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죄에 빠진 사람들과 그들이 겪은 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연민(compassion, 생각과 행동 모두에서)이 없다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이 진실하고 그로 인해 성장하고 있다면, 개인적인 구원

과 그리스도와 같은 연민(compassion)의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کمپیشن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가난한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하여 구속적 관심을 나타낼 길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재정 관리, 격려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사역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트 맥가비(Pete McGarvey), 자넷 포사이스(Janet Forsyth), 글렌 클리블랜드(Glenn Cleveland), 미리암 스완슨(Miriam Swanson), 도널드 J. 스미스(Donald J. Smith)

편집자의 특별 메모

이번 호가 인쇄되는 시점에서, 미리암 스완슨 부대표와 저는 2개월 반에 걸친 کمپیشن 세계 일주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출장은 9월 중순에 시작되었고, 11월 말쯤 끝날 예정입니다.) 지구를 일주하는 이번 여행을 통해 우리는 가난한 어린이들을 섬기는 모든 주요 지역과 미래에 시작하게 될 새로운 곳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후원자들이 어린이를 지원하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후원을 유치할 목적으로 향후 출판과 라디오 및 TV를 통한 발표를 위해 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우리는 녹음기, 사진용 카메라와 영상용 카메라를 갖추고, 여러 면에서 유용하게 쓰일 아주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후원자 여러분을 가장 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잡지를 통해 우리의 경험을 보고할 것입니다. 미리암 여사는 내년 봄 미국 순회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훌륭한 재능을 지닌 한국 어린이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에도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인도 및 카리브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여행에서 우리가 배우고 느낀 것들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전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여기 있으며, 이 힘든 "현장 조사"의 여행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효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많은 내용을 얻게 될 것입니다.

- 에드 론(Ed Ronne) 커뮤니케이션 실장

کمپیشن의 심장을 가진 후원자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컴패션의 심장을 갖고, 10명의 한국 현지 전도사의 안녕과 사역을 위해 헌신한 후원자님을 소개합니다.

위스콘신(Wisconsin)주에 거주하며,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는 이 은퇴한 후원자님 한 분이 이 모든 전도사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15년 이상 동안 우리 컴패션과 마음을 합하여 이 전도사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는 이러한 종류의 후원이 자신의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이 전도사들을 방문하고 싶는지 물었을 때, 그는 "차라리 집에 머물면서 그 돈으로 그들의 사역을 돕는 데 쓰고 싶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각 전도사를 지원하는 데 매월 22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우리는 또한 미국 정부(Uncle Sam)가 그의 소득세 공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15년 동안 매년 이러한 공제에 대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 후원자가 매달 받는 가장 큰 축복은 "그의" 전도사들이 보내오는 사역 성과에 대한 가슴 따뜻한 보고서들일 것입니다. 이 전도사들의 사역으로 다시 태어난 영혼들은 오직 영원한 세계에 가서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거지"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신앙심에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진 이 헌신된 후원자님에 대해 우리는 매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도사 리스트 10명 사진: 원본 이미지 참조)

몸이 별로 좋지 않다면...

컴패션의 한국 간호사 팀이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뒷줄 세 명의 미국인 간호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진 존슨(Jean Johnson) 초빙 사회복지사, 안나 로라바우(Anna Rorabaugh) 초빙 공공 보건 간호사, 그리고 부산에서 온 간호팀 팀장 샬리 스완슨(Sally Swanson).

이 여성들은 한국인 보조 간호사들과 함께 한국의 간호사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모든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젊은 여성들은 분명히 우리 컴패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모를 당하던 소년이 품격 있는 자로 변화하다.

- *매사추세츠의 한 헌신적인 후원자 덕분에 성공한 한국 고아 소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컴패션 자료에서 발췌)

약 10년 전, 매사추세츠주 액턴(Acton)에 사는 한 친절하 사람이 우리의 사역에 대해 듣고 즉시 고아 학생을 후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컴패션은 이 새로운 후원자에게 서울에 있는 김창의(Kim Chang Ui)라는 이름의 고등학생과 연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미국 후원자가 생겼다는 좋은 소식을 들은 창의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의는 대부분의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교육이 사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려면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창의는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후원자의 상당한 기부 덕분에 창의는 1968년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며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학 학위가 그의 학업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원자는 그의 대학원 공부를 계속해서 도와주었습니다. 1970년 2월, 창의는 고려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고아 소년이었던 창의는 이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진의 일원이 되었으며, 신학교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서이자 강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어린 김창의는 바쁘게 돌아가는 서울에서 버스 기사가 되거나, 도로 작업반의 현장직을 하며 돈을 깨는 평범한 노동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논밭에서 일을 하며 진흙에 발목이 빠져 허우적대는 농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1964년의 김창의는 그저 또 한 명의 고아였을 뿐이었으니까요. 오늘날, 그가 성공한 직장인이 된 것은 오직 자신의 축복을 나누고자 했던 한 후원자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추신.

후원자는 김창의의 성장과 교육에 참여하게 된 것을 특권이자 축복으로 여기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제 기쁨이었어요!"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 Winter Aid Relief Money) 관련 마지막 안내

1970년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 Winter Aid Relief Money)에 대해 너무 자주 언급하고 있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을 통해 힘들게 번 돈을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우리가 사역하는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완전한 겨울의류 세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했어요.” – 한국, 홍춘만(Hong Choon Maan)

- “저희 학교에는 8명의 선생님이 있는데, 지금은 학교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빌려야 해요.” – 인도네시아, 조셉 나탄(Josep Natan)
- “산으로 소풍을 갔는데, 아주 빠른 다람쥐를 보았어요. 다람쥐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 한국, 최낙인(Choi Nak In)
- “우리 반에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선생님은 참을성이 있는 분이세요. 우리에게는 예쁜 새도 있는데, 좀 사나워요.” - 인도네시아 바하사(Bahasa), 텡 지악 히에(Teng Giak Hie)
-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말다툼을 했어요. 제 생각엔 친구에게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원자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드려요.” – 한국, 정향란(Jung Hayng Ran)
-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집에 살고 있지만, 주님을 사랑해요.” - 인도네시아

르네 월터스(Lynette Walters)와 다이앤 브릭스(Dianne Briggs)를 환영합니다!

(사진)

르네 월터스(Lynette Walters)가 하비(Harvey) 대표의 비서인 로라 멀 갈렌(Laura Merle Galen) 여사와 그녀의 새로운 해외 직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컴패션 직원 중 가장 최근에 합류한 르네 월터스(Lynette Walters)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재정 지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카르타에 있는 “본거지”에서 후원금의 적절한 분배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자바에 있는 우리의 사역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할 것입니다.

르네 월터스(Lynette Walters)는 설립된 지 4년 된 워싱턴 D.C.의 기관인 크리스천 서비스 코퍼레이션(Christian Service Corporation, 종종 “교회의 평화 봉사단(Peace Corps)”이라고도 함)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 출신으로, 1955년 영국 햄프스테드(Hampstead)에 있는 세인트 고드릭 비서 칼리지(St. Gordric’s Secretarial College)를 졸업한 그녀는 1960년 토론토로 이주했으며, 그곳에서 미국 내 다양한 비서직 및 사업 관련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 산하기관인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근무한 뒤 컴패션에 합류했습니다.

덧붙여서 르네에게 여행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965년, 그녀는 봄베이(뭄바이)에서 런던까지 버스를 타고 여행했습니다! 그녀는 두 달 만에 10,000마일(약 16,093킬로)을 여행했습니다. 르네는 “저에게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다양한 나라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라고 이야기합니

다. 수많은 여행을 통하여 그녀는 이미 세계를 두 차례나 여행했습니다. 그녀의 합류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컴패션 사역의 책임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입니다.

다이앤 브릭스(Dianne Briggs)는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 러셀(Russel)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에 있습니다. 현재 그녀는 한국의 서울 본부 사무실에서 비서 겸 회계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상사"는 월리 에릭슨(Wally Erickson)입니다.)

다이앤은 1969년 뉴욕주 노스칠리(North Chili)에 있는 로버츠 웨슬리안 칼리지(Roberts Wesleyan College)에서 역사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린이들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며, 서울에서 걸스카우트 리더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다이앤과 르네에게 "컴패션 호의 승선을 환영합니다."라고 인사를 전합니다. 컴패션의 사역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동안 주님께서 매일 두 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노래할 준비가 되었어요! (컴패션 어린이 합창단)

(사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 빌리(Billy, 박일춘(Pak Il Choon), 10 세, 178 호 보육원),
- 리사(Lisa, 이복녀(Lee Bok Nyo), 7 세, 178 호 보육원),
- 베키(Becki, 박선자(Pak Sun Ja), 5 세, 63 호 보육원),
- 캐럴(Carol, 박명선(Pak Myung Sun), 12 세, 103 호 보육원),
- 로리(Lori, 전순자(Chun Soon Ja), 11 세, 132 호 보육원),
- 대니(Danny, 주광식(Joo Kwang Shik), 10 세, 122 호 보육원)

이 행복한 한국 어린이들은 1월 하순부터 시작되는 순회 공연을 위해 미리암 스완슨 컴패션 부대표가 방금 선발한 어린이들입니다. 이번 여정에는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그리고 아마도 서부 해안 지역이 포함될 것이며, 공연은 주로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스완슨 여사는 이 작은 합창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번 투어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정말 멋진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공연에서 함께했던 빌리(Billy)와 리사(Lisa)가 이번에도 함께하며, 또 다른 네 명이 더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청중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작은 인형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이도 있습니다. 기록 상으로 베키(Becky)는 1965년에 태어났지만, 실제로는 세 살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귀엽고 어린

아이 같습니다. 동글동글한 이 어린이는 아마 여러분이 본 어린이들 중 가장 귀여운 어린이일 것입니다. 특별히 예쁘지는 않지만, 정말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의 노래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한 모든 노래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저는 오디션에서 두 명의 나이가 많은 두 소녀에게 듀엣을 부르게 했는데, 이 둘은 그 날 처음 만났고, 함께 노래를 부른 적도 없었지만, 그들이 부른 듀엣곡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현재 그들은 장 여사(Mrs. Chang)와 함께 지내고 있으며, 투어를 위한 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중 한 소녀는 영어로 노래를 부르는데, 발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행 일정이 준비되는 대로, 방문 지역에 거주하는 후원자들에게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원자들의 한 마디

노스캐롤라이나주 뉴번(New Bern)에서:

“저는 한동안 인도의 한 어린 소녀의 후원자였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중한 어린 소녀를 마치 제 친딸처럼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높은 어린이 사망률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수의 의사와 의료 시설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비버댐(Bever Dam)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즉 어린이들과 그들의 선생님들, 그리고 가난한 고아들을 그토록 염려하는 귀한 사람들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오하이오주 키드론(Kidron)에서:

“우리 어린이의 사랑스러운 편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 어린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해 수표를 동봉합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셀러스빌(Sellersville)에서:

“올해 5월 베트남에서 헬리콥터 조종사로 일했던 남편이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남편은 사실 바로 그날 베트남 고아를 입양하기 위한 절차가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그의 죽음으로 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념하여 우리는 대신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

주에서 청취되었습니다.

잭(Jack)은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컴패션을 도와주시면 오늘 밤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편지를 보내 어린이를 후원하고 싶다고 전하세요.”

월리는 또한 시카고 NBC TV와 라디오 방송국 WBBM, 그 외 여러 방송국에도 출연했습니다. 컴패션은 이 모든 무료 공영 방송 시간이 우리 사역을 위해 제공되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언에 관한 메시지 (유산 기부)

- *미루는 습관: 하나님과 인간의 적*

글: 도널드 J. 스미스 후원자 관리 이사

사람들의 유언장 작성을 방해하는 주요 장벽 중 하나는 미루는 습관, 즉 "미루기"입니다. 미루는 습관으로 인해 많은 선의의 사람들이 유언장 없이 사망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주정부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인계받아 고인의 재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유산에 대해 세금과 소송 비용으로 막대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정부의 결정이 고인이나 그 가족의 바람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가는 결코 고인의 재산을 그의 종교적 또는 자선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언장은 가족에게 매우 중요하며, 특히 여러분의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유언장을 통해 관련 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주정부는 후견인을 지정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고속 여행이 보편화된 시대에는 일반 사고로 인해 부모 두 사람이 모두 목숨을 잃는 것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유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언을 통해 교회, 대학, 세계 선교, 그리고 유사한 사역들을 기억하라고 인도하신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최소한의 저항”을 선택하여 유언을 미루지 말아야 하는 몇 가지 이유에 불과합니다.

결단력 부족과 그로 인한 유언 작성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1. 낮은 동기부여: 즉각적인 필요성이나 긴급성을 인식하지 못함
2. 정보 부족: 유언에 대한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이해
3. 복잡해 보이는 절차: 재산을 요약할 수 있는 간소화된 방법이 없는 경우

4. 과도해 보이는 법률 비용: 현재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쌌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변호사 비용은 여러분이 유언으로 남겨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보다 많지 않습니다.

کمپیشن은 이러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کمپیشن을 통해 제공되는 이 무료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면 오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کمپیشن

7774 West Irving Park Road
Chicago, Illinois 60634

친애하는 스미스 씨,
제 유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신의 유언을 통한 효과적인 기부"
- () "국가가 당신의 유언을 작성했습니다."
- () "유언장 작성하기"
- () "사람들이 유언장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37가지"

이름 _____
주소 _____
도시 _____ 주 _____ 우편번호 _____

기억하세요 - 여러분의 유언장 작성을 미루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적입니다!